“신도 청탁 들어주다간 김영란법 저촉”

조계종, 8월 22일 종교계 최초 ‘김영란법’ 특강

“김영란법에 대해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청탁자로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범위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민원 청탁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8월 22일 조계종서 종교계 최초로 관련법 특강이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김영란법에는 종교인의 민원 청탁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온 불교계가 특히 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권익위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불교계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박 교수는 “가장 먼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청탁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문화재위원이나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대표 등으로 있는 스님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직무연관성에 대해 외경주의, 즉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판단하기에 본인이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도 신고 등으로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시·공양 미덕인 불교계
제3자 청탁시 법 저촉돼
공익 목적에도 예외조항 없어

이어 박 교수는 “청탁자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제3자를 위해 청탁하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부탁 등으로 인해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스님들이 신도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인의 이러한 활동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종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 조계종 종무원 특강에서 참석한 스님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박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제재가 없다. 반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영 교수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도 명시돼 있으며 그 수준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은 30억원, 일반고발은 5억원 등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스님과 불자들이 이 법을 숙지해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전국 사찰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김영란법 Q&A, 불교계 궁금증

답변=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Q. 불교계에서는 성지순례를 가는 일이 많습니다. 기자 동행취재 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기자는 언론사의 직원으로 공적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 중 숙식제공 등과 관련해 동법 5조 3항 6호가 적용되는데요.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사유로 면책됩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대회나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Q. 스님들의 경우 문화재 분야나 인권 분야 등 많은 공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들도 김영란법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공무수행사인’이며 주어진 당해 공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언론사 임원·대표 스님도 포함됩니다.

Q. 템플스테이 등 국가예산 사업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청탁 등을 하게 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사안에 따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홍보비 지출은 적법하지만 ‘사업상 청탁’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위배된 경우라면 이 법에 적용됩니다.

Q. 불교계에서 행사 진행 전 언론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합니다. 언론홍보를 목적으로 한 접대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법령에 저촉됨이 없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의 금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법의 특성상 ‘불확정 개념’이 적지 않고, 시행 전인 까닭에 앞으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법주사 관람료 폐지’ 추진하는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주사도 관람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충북도는 “법주사, 보은군 등과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1월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월 24일 밝혔다.

충북도는 “법주사 측의 전향적인 생각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화의 틀이 마련됐고, 문화재관람료 수입금 검증과 손실분담금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보은군과 함께 법주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원금 산정은 최근 3년 관람료 수입을 토대로 할 계획이지만 법주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8월 25일 열린 3자 실무협의 후 법주사 측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관광활성화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관람료 폐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옛 선지식 구법정신 새기고 전법 매진”

조계종 교육원, 24~30일 中 선종사찰 순례



중국 선종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기 위한 순례가 시작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서안, 낙양, 정주 일원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함께 하는 중국 선종 사찰 순례’를 개최했다.

24일 서안에 도착한 순례단은 중국 3대 사찰로 손꼽히는 법문사를 방문하고 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법문사는 부처님 불지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증명법사로 참여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옛 선조 스님들의 치열한 구법 정신을 새기고, 이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순례단 대중에게 당부했다.

원각 스님은 “1천년 전 무상, 원칙 스님 등이 몇 달, 몇 년에 거쳐 왔던 길을 우리는 하루에 왔다”며 “이처럼 세상은 편리해지고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았다. 각박해지고, 소통이 되지 않으며 정신문화는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만큼 포교하기 좋은 시대는 없다. 법문을 하면 당장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옛 선조들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와 역경을 하고 법을 전했다. 우리 역시 이 같은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순례단은 법문사 주지 현공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법문사가 2007년 개원한 불학원의 교육 시설을 견학했다.

현공 스님은 “한국과 중국의 불교는 유구한 역사 안에서 교류를 나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전 불교의 명맥이 잠시 끊겼지만, 한국은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현대에 들어 법문사는 도선사와 우호 사찰 협약을 맺는 등 다방면의 교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교류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순례 기간 동안 ‘길상묘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원각 스님은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입장을 내려놓고, 중간마저도 내리고, 대화해야 지혜가 나온다”면서 “세계인들이 조화·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불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례단은 구마라집의 역경처 초당사, 해동화엄 개창조 의상 스님 주석처 지상사, 밀교 총본산 홍선사, 현장 스님이 서역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한 대안사, 숭산 소림사 등을 순례한다.

중국 서안=신성민 기자

군산 동국사서 미군 특별보고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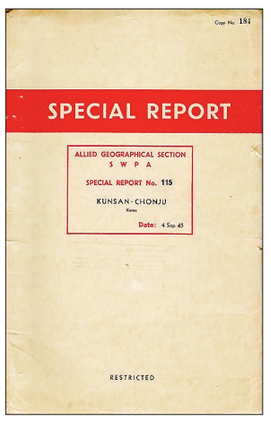
동국사 소장 근대문화유산 학술조사 중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서 해방직후 미군이 작성한 영문판 특별보고서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는 동국사가 보유하고 있는 6,000여종에 이르는 근현대 자료에 대해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으로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학술조사 과정서 발견됐다.

맥아더 장군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는 이 특별보고서는 1945년 9월 4일자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남태평양사령부(SWPA,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국에 인천-경성(SR109), 부산(SR111), 군산-전주(SR115) 등 3개 지역, 일본에 9개 지역, 구 소련에 1개 지역 등 모두 13개 지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군산과 전주지역에 대한 보고서 문건이다.

첫 부분은 12장에 걸쳐서 다양한 지리적 정보, 군사 시설 및 산업 시설, 항만, 철도 등 교통·통신정보와, 활주로 길이 및 좌표, 방송 시설, 생활 실태, 기후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부분은 9장의 사진과 9장의 지도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말기에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를 양성하는 곳으로 알려진 다치아라이 비행학교(大刀洗飛行學校 群山分校所) 정보도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군산 동국사서 발견된 특별보고서 표지.

이번에 발견된 특별보고서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까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동국사는 소장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향후 소장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깨달음센터 수행법

1단계 : 화엄경 간경 및 사경
2단계 : 화엄선(禪) 수행
3단계 : 무의자재 수행
4단계 : 동시실천 수행
5단계 : 수인원통 수행

제 3차/4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 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화엄경 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1:1친견시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 후 확인증을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 개 강 좌 일 시 : 제3차 공개강좌; 2016년 10월월 23일 (일) 오후3시
제4차 공개강좌; 2016년 12월 18일 (일) 오후 2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깨달음센터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깨달음 센터
주지 원일 합장